

[보도자료] 쿠팡,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 청주캠프 완공 점진적 전국 확대 나서

2023. 8. 16.



- 쿠팡, '전기화물차'에 최적화된 전기차 통합센터 확대로 친환경 배송생태계 조성
- 수도권, 제주, 부산 이어 충북 청주 1캠프에 전기차 통합센터 완공하며 전국확대 나서
-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 제주 3캠프 시작으로 물류환경 최적화된 친환경 배송 인프라 혁신
-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물류 시스템으로 친환경과 최첨단 물류 두 마리 토끼 잡아

2023. 8. 16. 서울 - 쿠팡이 친환경 배송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도권과 제주, 부산 지역에 이어 충북 청주 1캠프에 전기차 통합 배송 센터 건립을 완료하며 점진적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은 시작부터 친환경 배송을 고려해 설계된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를 건립해 배송 캠프 내에 전기화물차 충전 인프라를 만들고 충전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유통물류 분야에 최적화된 전기화물차 운영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쿠팡이 2021년 오픈한 제주3캠프는 전기화물차의 이동 동선, 충전 효율화 등 유통물류 환경에 최적화된 천장형 중속 충전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이다. 배송 업무 전후 쿠팡친구가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천장에 달린 충전기를 차량과 연결하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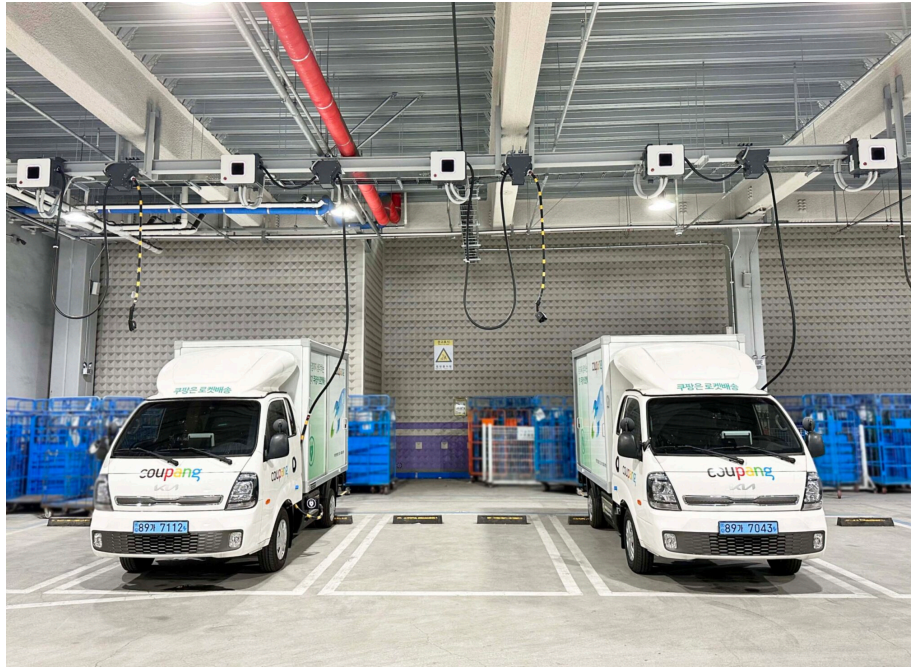
쿠팡은 제주 3캠프를 시작으로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배송 중 탄소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배송 인프라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쿠팡은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를 통해 운행에 필요한 전력량을 직접 공급하면서도 충전과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친환경 배송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복잡도가 높은 물류 환경을 고려해 차량 대수에 따라 전력분배가 가능하고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중 충전기 대비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 충전기를 이번 청주 1캠프에 적용했다.

특히 부산과 청주 1캠프에는 쿠팡친구 뿐 아니라 전기화물차를 사용하는 외부 택배기사(퀵플렉서)들도 사용 가능한 공용화 충전기를 구축해 충전 인프라 이용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은 향후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부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 확대를 진행한다.

쿠팡은 완공된 청주1캠프를 포함해 수도권, 제주, 부산 5개 지역에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를 구축한 것에 이어 점진적으로 전국 확대를 진행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의 전국 확대로 더욱 효과적인 친환경 배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쿠팡의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도적인 친환경 배송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이용이 증가하는 전기화물차의 충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